

# 허탈한 헛걸음...

## 은행들, 자금난 中企 서로 돕겠다더니 인증서·담보요구 등 대출 장벽 여전 대출 실적 부풀리기·생색내기 급급

은행들이 올들어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내놓은 상품들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중소기업 지원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 잇속 챙기기만 급급해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목표 뒤편기 관행 여전=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판매한 '사회책임경영대출'은 5천억원 한도 가운데 0.03%에 불과한 1억5천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은 통합은행 출범을 기념해 성장형 중소기업이나 친환경기업, 사회공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내놨던 이 상품이 인기를 끌지 못하자 지난 8월부터 산업자문부와 제휴해 판매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지만 대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은행이 올초 토종은행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하이테크'의 판매 실적도 20일 현재 1천697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1조원의 1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물에 빠진 기업을 살려

주했다던 약속도 매정하게 내팽개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기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지에서 파스한 손길을 내밀자 신한·우리·하나·산업·기업·수출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로 돕겠다고 나섰다. 지난 달말까지 실제 지원한 금액은 335억원으로 목표액인 2조1천억원의 1.6%에 불과했다.

토종은행권을 외치는 우리은행은 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적이 전무했고 역시 5천억 원을 목표로 내세웠던 신한은행도 53억원 대출에 그쳤다.

존립 근거가 중소기업 지원인 기업은행은 한도를 당초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으나 지원액은 겨우 30억원에 그치는 '논가라고 이용하는 식'의 지원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은행도 관행 인정... "당국 지도 뒷따리아"= 산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겉으로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혁신기업 지원 등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인증서나 담보 등 매우 까다로운 조

건을 내세워 대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경기 둔화' 쪽은 전체 경기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해 놓고서도 지난달부터 일부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리프라이싱(가격 재조정) 작업을 통해 예대대진을 높이고 있어 '비오기 전에 우산 빼앗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뒤편기 관행은 은행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자정노력과 함께 뒤편기가 지나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창구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초나 명절 때마다 지원 약속을 하지만 대부분 실적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 스스로 자제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야 하겠지만 오랜 관행인 만큼 당국의 감독과 지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인삼 장복하면 기억력 좋아진다"

## 국제심포지엄 쉐 케네디 교수 치매환자에도 큰 효과



한국 인삼이 기억력을 높이고 알츠하이머(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인삼학회 주최로 26일 충남 금산 다락원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 영국 노샘브리아대(Northumbria University)의 데이비드 케네디(David Ormonde Kennedy) 교수(사진)는 홍삼 추출물을 장기 복용하면 학습효과와 관련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케네디 교수는 18명의 성인에게 홍삼추출물 200mg을 8주간 매일 먹게 한 뒤 1일, 29일, 57일째 아침에 작업기억력과 공간작업능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홍삼을 8주간 복용한 사람들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과 공간작업능력이 좋아지고 단기 복용보다 장기 복용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이 홍삼 복용 이후 사람의 감정 변화

를 측정할 결과, 복용 전 평정(Calm)·이완(Relaxed) 상태에서 흥분(Excited)·긴장(tense) 상태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홍삼이 뇌기능 활동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인지능력 분야와 관련된 홍삼의 효능에 대한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그 가치가 크며, 향후 홍삼이 뇌 기능에 미치는 또다른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서울대 의대 김만호·이순태 연구팀도 인삼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교수팀은 알츠하이머 환자 68명(평균 나이 66.9세)을 대상으로 인삼치료군 환자 42명에게 1일 인삼분말 4.2g을 투여하고 다른 21명에게는 일반 치료법을 유지했다.

그 결과 4주째 인삼치료군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인지기능이 개선됐으며 12주까지 효과가 지속됐다. 12주째 인삼투여를 중지했을 경우 호전됐던 인지기능이 다시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학회의 한 관계자는 "치매를 포함한 뇌기능 개선에 대한 이같은 연구결과들은 향후 인삼의 뇌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조선업체 2개월 연속 세계 1~5위 싸늘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2개월 연속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휩쓸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

26일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Clarkson) 9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각국 조선소 수주 잔량은 현대중공업이 1천234만CGT로 부동의 1위를 질주한 가운데 삼성중공업(912만CGT)과 대우조선해양(737만CGT)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417만CGT)과 현대삼호중공업(306만CGT)은 4, 5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지난 6월 '톱 5'에 진입해 충격력을 던져줬던 중국의 대련선박중공업은 286만CGT로 6위에 머물렀다.

8월말 수주잔량을 7월과 비교할 때 현대미포조선은 427만CGT에서 417만CGT, 현대삼호중공업은 323만CGT에서 306만CGT로 각각 감소세를 보였지만 경쟁사인 대련선박중공업 또한 같은 기간에 292만CGT에서 286만CGT로 줄어들어 순위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26일 광주 서구 광천동 경복궁웨딩홀 야외마당에서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대형트럭 '트라고(TRAGO)'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25t 카고, 컨테이너 수송용 트랙터, 25.5t 덤프 등 3개 차종으로 기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를 크게 개선했다.

## "기업 투자않고 현금만 쏟아 놓고 있다면 국가 경제 망치는 행위"

### 장하성 교수 "배당통해 소비촉진시켜야"

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재무구조개선펀드(KCGF)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대학장)는 26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없다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업이 투자할 곳도 없으면서 배당도 하지 않은 채 현금만 쏟아놓았다면 국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소비와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소비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기업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면 배당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는 배당을 나쁜 것처럼 보는 시각이 많은데 기업이 일정한 수익을 올렸지만 투자할 데가 없어 현금을 쏟아놓고 있으면서도, 주주에게 배당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문제다"라며 "최근 제기된 태광산업·대한화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물론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이 있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주권리 행사에 대해 "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만큼 가능하지만 경영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라, 마라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투자는 거시적인 것이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천주 미래셋그룹 회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기업인 나라건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상승이 가능해진다"며 "연구개발·신규사업 등의 투자없이 배당에만 전력하는 기업은 미래셋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적자 2,500억弗

### "부품·소재 수출 확대 개선" 노·사·정 나서 투자유치활동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부품·소재 수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산업자문부는 26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이응득 한국노총위원장, 전자·기계·자동차 등의 수출 유망 부품·소재 중소기업 67개 업체 경영진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부품수입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위한 코리아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현지 유력 구매자와의 한국부품산업상담회,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아웃소싱상담회가 각각 열렸고 한복 패션쇼, 국악 공연, 비빔밥 여흥 등 한류 확산과 문화상품 수출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산자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62개 기업과 일본 현지의 유력 바이어 250여명의 수출상담을 통해 2천만달러 상당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계속되면 실질적인 성과는 더 확

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일본 현지 무역관도 수출 계약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국내 부품업체와 닛산디젤 등 일본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 앞으로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이번 행사를 내년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산업교류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대일시장 진출 교류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해까지 대일 무역 누적적자는 2천500억달러에 달하고 이중 부품·소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5.9%(2005년 기준)로 가장 커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분야의 대일 수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전셋값 최근 6년새 24.5% 상승

최근 6년간 광주의 전셋값이 24.5% 오른 것을 비롯 전국의 전셋값이 2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전셋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26.1%에 달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전셋값 상승률은 대전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구 28.6% ▲인천 27.8% ▲서울 25.3% ▲광주 24.5% ▲울산 24.3% ▲부산 1.9%에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세대란'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소액우선변제제도'는 확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年 소득 4,000만원 가구 한해 세금·보험료 496만원

연간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지난 한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로 143만원,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소비세로 198만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연금과 보험료 155만원을 더하면 전국가구에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가 부담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496만원에 이른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조세·이전소득의 분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5년도 전국가구가 가구수치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천693만원, 이전소득은 287만원, 총소득은 3천980만원, 세후소득은 3천484만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각 가구는 소득세로 131만원, 재산세로 12만원 등 총소득의 3.6%에 해당하는 143만원을 직접세로 부담한 것으로 계산했다. 또 부가가치세(120만9천원), 교통세(38만4천원), 주행세(8만7천원), 교육세(11만2천원) 등 소비세로 198만원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중앙생명	[광주]본사 콜센터 수호천사 상담원 150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2-518-2769
구성HMC	병원영업 및 관리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9/28	062-951-5506
태정산업(주)	생산관리부 지체파조 여 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8	062-953-2300
(주)휴리포르토닉스	[재무/회계, 연구/개발]직접규격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8	062-600-0111
(주)STS커뮤니케이션	[광주]삼성생명 콜센터 상담전문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600-0802
기나인테리어	설계실 직원 및 시공팀 직원(CAD/3D)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375-8840
경진산업개발	자동차부품 생산조립라인 근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523-2072
남미종합건설(주)	건설회사 관리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385-0800
(주)휴로넷	[주5일]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02	02-780-9595
(주)광주은행	정규직 행정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2	062-239-5708
센스	기계설계/엔지니어	초대졸/경력3년	3000~3200	10/04	062-955-5211
(주)KTES	인터넷 쇼핑몰 키태고리매니저(CM)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4	062-371-8525
(주)대신건설 이엔씨	토목안전진단 기술자 경력자	대졸/경력3년	3400~3600	10/04	062-374-2008
리셀텍	LED분야 품질관리 경력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0/04	031-205-53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보해 매취순 국내최고 '웰빙주'

보해 매취순이 우리나라 최고의 웰빙 과실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26일 '2006년 한국소비자웰빙지수'에서 매취순이 과실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웰빙지수(KWCI)'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표준협회컨설팅과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웰빙 인식을 공신력있게 평가하는 지수.

올해는 22개 산업부문, 149개 상품군, 577개 브랜드를 후보군으로 선정해 전국 11만5천4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주류부문에서는 매취순과 천년약속이 과실주 부문과 전통주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90년 첫 선을 보인 매취순은 5년 속성의 국산 매일주 원액만을 100% 사용, 10여년이 넘도록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매실에 함유된 구연산이 피로회복은 물론 노화방지, 숙취해소, 암 억제,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취순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